제1장

#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경희

## 1. 머리말

본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한당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1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2021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한당 시기의 유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72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이 10편이고, 일반논문이 62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9년도 86편, 2020년도 95편에 비해서 적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65편, 진한시기 7편이다. 2019년도에는 선진시기가 81편, 진한시기가 5편, 2020년도에는 선진시기가 87편, 진한시기 7편, 당나라 시기 1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 유학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 2. 인물별 분류

전체 72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두 50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19편, ②맹자: 17편, ③순자: 7편, ④기타인물: 7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43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왕충(王充)·정현(鄭玄)·양웅(揚雄)·왕필(王弼)과 당대의 공영달(孔穎達) 등이 관련된 논문은 7편이 있다. 인물별 전체 논문의 편수는 2021년도 50편으로 2019년도 50편과 2020년도 57편에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공자관련 논문은 2020년도에 24편에 비해 19편으로 소폭 줄었고, 순자관련 논문은 2020년도에 8편에 비해 7편으로 비슷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20년도에 17편과 동일하다.

한대(漢代)의 유가사상가 관련 논문은 2019년 5편, 2020년 8편, 2021년도는 7편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0년도에 동중서(董仲舒) 3편, 왕충(王充)·왕부(王符)·정현(鄭玄), 양웅(揚雄)·환담(桓譚)·왕충(王充)을 중심으로 각각 1편이고, 당대는 공영달(孔穎達) 1편이 있었다. 2021년도에는 왕충(王充)2편, 정현(鄭玄), 양웅(揚雄), 왕필·하안, 동중서(董仲舒)를 중심으로 각각 1편이고, 당대는 유일하게 공영달(孔穎達) 1편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21년도에는 공자·맹자·순자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금년에는 동중서 이외에도 왕충, 정현, 양웅, 왕필·하안 등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어, 한대(漢代) 사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공자 관련 논문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안외순 | 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의 재고찰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 동방학 44 | 동양고전연구소 |
| 2 | 안외순 | 호혜적 공감의 문화정전 『논어』와 『맹자』 | 동방학 45 | 동양고전연구소 |
| 3 | 안외순 | 『논어』 '지명군자장(知命君子章)' 고석 | 한국철학논집70 | 한국철학사연구회 |
| 4 | 정세근 | 왕필의 신화와 『논어』 | 孔子學 43 | 한국공자학회 |
| 5 | 김형<br>정세근 | 공자의 권(權) 개념과 인간의 유형 | 범한철학100 | 범한철학회 |
| 6 | 김민재 | 공자와 묵자 사상의 동이점(同異點) 고찰과 도덕교육적 시사점 연구 — 겸애(兼愛), 상현(尙賢), 귀의(貴義)를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105 | 동양철학연구회 |
| 7 | 이인화 |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유교 및 공자 인식과 국민도덕론 체계에서의 활용 | 동서철학연구102 | 한국동서철학회 |
| 8 | 이석주 | 제자백가의 사랑 –공자와 맹자의 '사랑'과 '원망'– | 철학·사상·문화 35 | 동서사상연구소 |
| 9 | 금종현 | 질서와 분배의 측면에서 義 개념의 연속성 고찰 — 『논어』까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107 | 동양철학연구회 |
| 10 | 정균선 | 왕궈웨이가 본 중국 고대 철학의 주요 개념인 '성(性)'에 대하여 –공자·맹자·순자의 성(性)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6 | 유학연구소 |
| 11 | 안춘분 |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 유학연구 56 | 유학연구소 |
| 12 | 권오륜<br>김정효 |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 유학연구 57 | 유학연구소 |
| 13 | 김영민 | 『논어』「자로」18장의 역사적 재해석– 제국 형성기의 동학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7 | 유학연구소 |
| 14 | 황광우 | 克己復禮의 맥락이해 (contextual understanding)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 범한철학 100 | 범한철학회 |
| 15 | 이강대 | 공자의 '道'에 관한 고찰 | 양명학 63 | 한국양명학회 |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6 | 서정화 |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 사상의 본질적 의미 – '공자에게 있어서 삼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절문(切問)하는 과정에서 –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 한국유교학회 |
| 17 | 정강길 |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 퇴계학논집 29 | 영남퇴계학연구원 |
| 18 | 손보미 | 『論語』 '學' 개념의 의학교육적 함의 | 동양고전연구82 | 동양고전학회 |
| 19 | 윤민향 | '관계적 공격성'에 대응하는 고전교육의 응용윤리적 접근 연구 – 『논어』 읽기를 통한 치유와 인격함양을 중심으로 –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 한국유교학회 |

2021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9편이다. 2019년도 21편, 2020년도 24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편 내외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19년, 2020년도 각각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 논문은 모두 19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안외순의 논문은 『논어』에 나타난 정의(正義 justice) 관념에 대해 분배적 속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필자는 『논어』에 나타난 정의관에 대하여 도덕적 성격이 강한 것은 물론이고 분배적 성격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정한 분배적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때 정치의 도덕적 정의도 구현되는 논리임을 설명했다. 기존의 경우 공자나 유교의 정의관에 대해 도덕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반면 필자는 공자의 분배적 정의관이 민에게 재화만이 아니라 교육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균형적, 도덕적, 부민적(富民的) 특징도 지님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의 측면에서 김영호는 『논어』 「요왈」 3장 '지명군자장(知命君

子章)'에 대한 한, 중, 일 역대 제가의 주요 주석을 예시하고 이를 분석, 검토, 정리한 바탕 위에 다시 현대 한, 중, 일의 주요 주석서를 참고하여 필자의 관견을 제시하였다.

공자의 '정치'와 관련된 논문은 4편이고, 교육에 기반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손보미의 논문은 의학교육에 공감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논어의 '학(學)'과 의학교육에서 공감교육을 관련시켜 의학교육에서 공감교육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나머지 논문들은 공자의 도덕철학,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맥락이해,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추후 공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2) 맹자 관련 논문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신예진 |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 박사학위논문 | 성균관대학교 |
| 2 | 서정선 | 孟子의 王道政治論 硏究 : 恒心과 恒産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 원광대학교 |
| 3 | 유뢰 | 맹자의 윤리사상체계 및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 우석대학교 |
| 4 | 정세근 | 맹자의 심론 | 양명학 60 | 한국양명학회 |
| 5 | 장원태 | 딜레마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곡속장(觳觫章) –인(仁)과 지(智)의 관계를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47 | 태동고전연구소 |
| 6 | 정혜진 | 『맹자』 사단(四端)의 한 해석: 칸트의 선험철학적 관점 | 동서철학연구99 | 한국동서철학회 |

| | | | | |
|---|---|---|---|---|
| 7 | 정우진 | 『孟子』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於心, 勿求於氣'에 대한 莊子적 해석 | 동양철학연구107 | 동양철학연구회 |
| 8 | 빈동철 | 전국시대의 '性'에 대한 담론과 인간의 본성 — 맹자와 순자, 그리고 『郭店楚墓竹簡』의 유가 텍스트로부터 — | 동양철학연구108 | 동양철학연구회 |
| 9 | 한상륜 | 『관자』심기론의 맹자 심기론에 대한 영향 고찰 –백해(白奚)의 『직하학 연구』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100 | 한국동서철학회 |
| 10 | 양재성 | 『맹자(孟子)』 「이루(離婁)」편의 구성방식(構成方式)과 그 의미 | 한국학논집 84 | 한국학연구원 |
| 11 | 진상훈<br>신창호 | 성선(性善)에 기초한 맹자(孟子)의 교육관 비판 | 율곡학연구 45 | 율곡학회 |
| 12 | 이강희 | 맹자와 고자의 대화 연구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 한국유교학회 |
| 13 | 허 석<br>임병학 | 『대종경』과 『맹자』의 인과사상 고찰 | 유학연구 54 | 유학연구소 |
| 14 | 서재현<br>김도일 |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힘 –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한 『맹자』읽기 – | 유학연구 57 | 유학연구소 |
| 15 | 정영수 | 맹자의 일치일란 역사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 한국유교학회 |
| 16 | 한송희 | 『맹자』에 나타난 고자 사상의 정치적 함의 — 『맹자』 「고자 상」 1~4장과 「공손추 상」 2장을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107 | 동양철학연구회 |
| 17 | 이애란 | 『맹자』 불인지심(不忍之心)의 감각적 한계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접근 | 인문과 예술11 | 인문예술학회 |

2021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17편이다. 2019년 14편, 2020년 17편으로, 2021년에도 17편으로 전년과 동일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에 2편이 발표되었고, 2021년에도 3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3편의 박사논문 중에서 서정선의 논문은 유교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국가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항

심(恒心)이라는 정신적 방법과 항산(恒産)이라는 경제적 방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필자는 맹자가 주장한 왕도의 실현방법으로서 항심(恒心)과 항산(恒産)에 주목하여, 이 논문의 핵심과제로 분석하였다.

일반논문 14편 중 6편도 각각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맹자의 심성론(心性論)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그 중에 정세근의 논문은 신유학의 심성론에 따라 복잡해지지 않은 본래의 간결한 의미를 지닌 맹자의 심론을 중심으로 축자적으로 밝히고 있다. 필자는 맹자가 도덕의 감정기원설의 주창자이며 공감 윤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맹자에게 도덕의 근원은 심 곧 심정이라고 부각시켰다.

빈동철의 논문은 전국시대 여러 텍스트 속에서 나타나는 '성(性)'에 대한 주요한 담론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맹자와 순자를 포함하여 이 시기의 지식인들이 제시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하여 하나의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했다. 필자는 '성(性)'에 대하여 맹자는 그 시대 일반의 주도적인 사상적 흐름과는 달리 자신의 철학적 신념 속에서 그 용어를 특별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순자는 당시의 주도적인 '성(性)' 담론을 수용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국시대 지식인들의 사유 속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성(性)'에 대하여, 그 개념의 실제적 의미에 접근하기 위하여 맹자와 순자, 그리고 곽점초묘죽간(郭店楚墓竹簡)의 유가 텍스트로부터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자 성론(性論)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순자관련논문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최승환 | 荀子 樂論의 敎育的 含意 | 박사학위논문 | 韓國學中央硏究院 |
| 2 | 이연정 | 선진시대 도통(道統) 의식 검토 –순자(荀子)의 도통 의식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 한국유교학회 |
| 3 | 배다빈 |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101 | 한국동서철학회 |
| 4 | 정영수 | 순자의 자연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 범한철학 103 | 범한철학회 |
| 5 | 정재현 | 윤리–정치적 진리와 순자의 正名 –三惑을 중심으로 | 철학탐구 63 | 중앙철학연구소 |
| 6 | 윤태양 | 정동(情動, affect) 개념을 통한 순자 '정안례(情安禮)'의 재해석 | 시대와철학 32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 7 | 엄진성<br>정병석 | 순자철학과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체육교육 | 철학논총 104 | 새한철학회 |

2021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7편으로, 2019년도 12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20년도 8편과 비슷한 논문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19년도 1편이 나왔고, 2020년에 1편도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최승환의 박사논문은 선진시기(先秦時期) 순자의 악론(樂論)이 품고 있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객관적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음악이 질박한 본성을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본성으로 변성(變性)하는데, 매우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순자가 인간 본성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질박함(本始材朴)으로 파악함에 따라, 교육의 적절성이 후천적으로 선한 도덕의식의 내재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순자의 악론(樂論)을 새롭게 정립

하려고 시도하였다.

배다빈의 논문은 청유(淸儒)의 긍정적 순자관 및 순자와의 사상적 관계에 관한 토론 자체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었다. 필자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청유의 순자에 대한 이해는 여러 논리적, 개념적 오류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류들은 그들의 순자에 대한 전체 평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순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필자는 순자 사상과 접촉한 많은 청유 가운데, 비교적 대표성을 지닌 전대흔(錢大昕)과 대진(戴震)의 순자관 및 사상을 통해 청대 순자학사의 양면을 고찰하였다.

윤태양의 논문은 성악설에서 출발하는 순자 도덕철학에서 도덕적 행위의 수행과 도덕적 존재화의 가능성이 정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구체적으로 순자 성악설의 논리구조와 성(性)-정(情)-욕(欲)의 일원적 동력구조의 장·단점을 밝히고, 마음의 역할을 검토하면서 정을 두 차원, 즉 '발현되기 전의 정'과 '발현된 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정안례(情安禮)의 도덕적 경지가 '발현되기 전의 정' 차원에서의 변화에 의지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정동(affect)' 개념을 스피노자-들뢰즈-마수미의 다양한 함의를 통해 '발현되기 전의 정'을 더욱 잘 조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순자철학의 독창성과 사상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기타 인물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 김영주 | 王充의 비판유학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 2 | 박동인 | 鄭玄의 讖緯理解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 – 감생제설과 우주생성론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4 | 율곡학회 |
| 3 | 조민환 | 조선조 유학자들의 양웅(揚雄) 이해에 관한 연구 | 대순사상논총 37 | 대순사상학술원 |
| 4 | 하가영 | 王充的自然元氣論與性命思想再詮釋 | 동양철학연구 106 | 동양철학연구회 |
| 5 | 정세근 | 왕필, 하안, 그리고 『주역』 | 동서철학연구 99 | 한국동서철학회 |
| 6 | 신창호 | 동중서(董仲舒)의 국가주의(國家主義) 교육사상 | 온지논총 66 | 온지학회 |
| 7 | 이현철 | 『淵海子平』에서 드러난 '太極'과 '形體'에 대한 고찰–漢代, 王弼, 孔穎達의 『易』사상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84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2021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7편이다. 2019년도 5편, 2020년 8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박사논문은 2019년, 2020년도 각각 1편이 나왔고 2021년에도 1편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2020년에는 여러 학자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공영달, 왕충, 양웅, 환담, 정현, 왕부, 동중서 등 한(漢)·당(唐)의 다양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1년에도 공영달, 왕충, 양웅, 정현, 왕필, 하안, 동중서 등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예상된다.

김영주의 박사논문은 왕충 비판유학의 논증 형식에서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주요 내용이 천인감응설과 참위미신에 대한 비판, 이와 더불어 유가의 이상 인격인 성인(聖人)에 대한 신

성화와, 이를 통한 유학의 종교화 등에 대한 비판에 있음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기성의 유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왕충의 자연과학 지식과 철학적 기반을 논술하고, 왕충 철학에서 최대의 논쟁처가 되는 자연명정론(自然命定論)을 자연주의 인간관, 역사관과 인성론, 화복론(禍福論) 등으로 나누어서 탐색하였다. 왕충의 천인관계론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지만, 이 논문은 왕충의 『논형』을 '비판유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왕충 철학의 독창성과 사상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동인의 논문은 동한말(東漢末)에 살았던 정현(鄭玄)의 참위(讖緯)이해와 그 사회·정치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필자는 한대의 금·고문경학을 종합한 대유학자 정현이 참위로 경전을 주석하고, 참위서에 주석을 달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정치적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정현의 『역위건착도』 주석이 정치적 목적과 철학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점을 탐구하여 국내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발표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논문들도 한당 유학자들의 『주역』, 국가주의 교육사상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사상 8편 ② 철학 41편 ③ 교육 5편 ④ 정치 및 경제 12편 ⑤ 기타 6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95편에서 72편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21년도 철학사상, 교육,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 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특히 경학사상은 전년도 16편에서 8편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2편, 『논어』 2편, 『맹자』3편, 『상서』1편이다. 경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2021년도 철학 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박사 논문이 4편이고 일반논문이 12편이나 발표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역학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왕충에 관한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어, 앞으로 한대 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기(禮記)』와 『춘추』 분야는 연구자와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예기』 「악기(樂記)」, 『춘추』, 『춘추 좌씨전』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 경학사상 연구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신예진 |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 박사학위논문 | 성균관대학교 |
| 2 | 김영호 | 『논어』 '지명군자장(知命君子章)' 고석 | 한국철학논집 70 | 한국철학사연구회 |

| | | | | |
|---|---|---|---|---|
| 3 | 김영민 | 『논어』「자로」18장의 역사적 재해석– 제국 형성기의 동학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7 | 유학연구소 |
| 4 | 정우진 | 『孟子』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於心, 勿求於氣'에 대한 莊子적 해석 | 동양철학연구 107 | 동양철학연구회 |
| 5 | 양재성 | 『맹자(孟子)』「이루(離婁)」편의 구성방식(構成方式)과 그 의미 | 한국학논집 84 | 한국학연구원 |
| 6 | 원용준 | 마왕퇴백서(馬王堆帛書) 『주역』을 통한 중국 고대역학(古代易學)의 재조명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 한국유교학회 |
| 7 | 이정석 | 『주역』 '삼진구덕괘'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검토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 한국유교학회 |
| 8 | 이은호 | 『상서』고문(古文)변위(辨僞)의 성운(聲韻) 활용 | 유교사상문화연구 83 | 한국유교학회 |

2021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8편으로, 2019년 18편, 2020년 16편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2020년에는 『주역』 분야가 6편이 발표되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2편으로 축소되었지만 작년과 같이 『상서』 1편이 발표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신예진의 논문은 맹자의 심(心)에 대한 견해가 잘 나타나 있는 〈不忍人之心章〉, 〈牛山之木章〉, 〈盡心章〉에 대한 주자학파의 주석(註釋)을 분석하고 그 핵심적 내용들을 '도덕심의 속성(屬性)과 근원(根源)', '도덕심의 회복(回復)과 함양(涵養)', '도덕심의 확충(擴充)'이라는 3개의 범주에 배치하고 심론(心論)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필자는 맹자와 주자 심성론(心性論)의 관계 및 주자의 심설(心說)에 대해 재검토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규명하였다.

원용준의 논문은 마왕퇴백서 『주역』을 현행본 『주역』및 기타 문헌자료들과 비교·고찰하여, 고대 역학의 한 측면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백서 『육십사괘』 고괘(蠱卦)의 상구효와 몽괘(蒙卦)의 괘사, 백서 『역

전』, 「이삼자문(二三子問)」편과 「요(要)」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규명하였다. 필자는 작년에 청화간(淸華簡) 서법(筮法)에 담겨 있는 전국시대 역학 및 점술에 대하여 한대 역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 고찰하였고, 금년에는 마왕퇴백서 『주역』을 현행본 『주역』및 기타 문헌자료들과 비교·고찰하여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주역』이외에 이은호의 논문에서는 『상서』고문(古文)변위(辨僞)의 성운(聲韻) 활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논어』, 『맹자』, 『주역』, 『서경』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철학 연구 분야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선천강 | 『周易』 해석의 諸樣相과 군자론 | 박사학위논문 | 성균관대학교 |
| 2 | 김현미 | 『周易』과 『淮南子』를 통한 '意象論' 연구 | 박사학위논문 | 성균관대학교 |
| 3 | 이도경 | 『周易』의 修養論에 관한 硏究 | 박사학위논문 | 대구한의대학교 |
| 4 | 황서영 | 『周易』 점사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논리적 정당성에 준거한 명리통변의 병용 | 박사학위논문 | 서경대학교 |
| 5 | 김영주 | 王充의 비판유학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 동국대학교 |
| 6 | 임병학<br>유병헌 | 「繫辭上」 제4장과 『주역』의 학문체계 고찰 | 동서철학연구 99 | 한국동서철학회 |
| 7 | 이선경 | 주역의 죽음관 | 동양철학연구 107 | 동양철학연구회 |
| 8 | 이난숙 | 『주역』에 담긴 '옥(獄)'의 의미와 해석 특징 | 유학연구 54 | 유학연구소 |
| 9 | 고윤숙 | 천지(天地)를 '본받음[以]'의 철학 —『주역(周易)』 건·곤괘(乾·坤卦) 「대상전(大象傳)」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0 | 한국철학사연구회 |

| | | | | |
|---|---|---|---|---|
| 10 | 고도연 | 기호학을 통한 『주역』의 이념과 감정 분석: 무왕 서사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101 | 한국동서철학회 |
| 11 | 주영우 |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주역』의 생명정신과 생태적 가치관 | 유학연구55 | 유학연구소 |
| 12 | 황광우 | 克己復禮의 맥락 이해 (contextual understanding)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 범한철학 100 | 범한철학회 |
| 13 | 윤무학 | 五行의 원시적 배속과 상호관계 – 『左傳』과 『國語』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6 | 율곡학회 |
| 14 | 이석현 | 중국 재이관의 성립과 변용 | 인문사회과학연구 22 |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 15 | 서정화 | 한대 천문역법 기록을 통해 본 '先天·後天' 의미 고찰 — 易과 曆의 가름과 조합에 대한 비근의 이해를 모색하며 — | 동양고전연구 84 | 동양고전학회 |
| 16 | 안외순 | 호혜적 공감의 문화정전 『논어』와 『맹자』 | 동방학 45 | 동양고전연구소 |
| 17 | 정세근 | 왕필의 신화와 논어 | 孔子學 43 | 한국공자학회 |
| 18 | 김 형<br>정세근 | 공자의 권(權) 개념과 인간의 유형 | 범한철학 100 | 범한철학회 |
| 19 | 정세근 | 왕필, 하안, 그리고 『주역』 | 동서철학연구 99 | 한국동서철학회 |
| 20 | 이인화 |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유교 및 공자 인식과 국민도덕론 체계에서의 활용 | 동서철학연구 102 | 한국동서철학회 |
| 21 | 이석주 | 제자백가의 사랑 –공자와 맹자의 '사랑'과 '원망'– | 철학 • 사상 • 문화 35 | 동서사상연구소 |
| 22 | 금종현 | 질서와 분배의 측면에서 義 개념의 연속성 고찰 — 『논어』까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 107 | 동양철학연구회 |
| 23 | 정균선 | 왕궈웨이가 본 중국 고대 철학의 주요 개념인 '성(性)'에 대하여 –공자·맹자·순자의 성(性)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56 | 유학연구소 |
| 24 | 이강대 | 공자의 '道'에 관한 고찰 | 양명학 63 | 한국양명학회 |
| 25 | 서정화 |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 사상의 본질적 의미 – '공자에게 있어서 삼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절문(切問)하는 과정에서 –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 한국유교학회 |
| 26 | 정강길 |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 퇴계학논집 29 | 영남퇴계학연구원 |
| 27 | 정세근 | 맹자의 심론 | 양명학 60 | 한국양명학회 |

| | | | | |
|---|---|---|---|---|
| 28 | 장원태 | 딜레마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곡속장(觳觫章) –인(仁)과 지(智)의 관계를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47 | 태동고전연구소 |
| 29 | 정혜진 | 『맹자』 사단(四端)의 한 해석: 칸트의 선험철학적 관점 | 동서철학연구 99 | 한국동서철학회 |
| 30 | 빈동철 | 전국시대의 '性'에 대한 담론과 인간의 본성 — 맹자와 순자, 그리고 『郭店楚墓竹簡』의 유가 텍스트로부터 — | 동양철학연구 108 | 동양철학연구회 |
| 31 | 한상륜 | 『관자』심기론의 맹자 심기론에 대한 영향 고찰 –백해(白奚)의 『직하학 연구』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100 | 한국동서철학회 |
| 32 | 이강희 | 맹자와 고자의 대화 연구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 한국유교학회 |
| 33 | 허 석<br>임병학 | 『대종경』과 『맹자』의 인과사상 고찰 | 유학연구 54 | 유학연구소 |
| 34 | 이애란 | 『맹자』 불인지심(不忍之心)의 감각적 한계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접근 | 인문과 예술 11 | 인문예술학회 |
| 35 | 이연정 | 선진시대 도통(道統) 의식 검토 –순자(荀子)의 도통 의식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 한국유교학회 |
| 36 | 배다빈 | 清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101 | 한국동서철학회 |
| 37 | 정영수 | 순자의 자연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 범한철학 103 | 범한철학회 |
| 38 | 윤태양 | 정동(情動, affect) 개념을 통한 순자 '정안례(情安禮)'의 재해석 | 시대와 철학 32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 39 | 조민환 | 조선조 유학자들의 양웅(揚雄) 이해에 관한 연구 | 대순사상논총 37 | 대순사상학술원 |
| 40 | 하가영 | 王充的自然元氣論與性命思想再詮釋 | 동양철학연구 106 | 동양철학연구회 |
| 41 | 이현철 | 『淵海子平』에서 드러난 '太極'과 '形體'에 대한 고찰 –漢代, 王弼, 孔穎達의 『易』사상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84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2021년도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41편이다. 2019년 48편, 2020년도 46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주역』 관련 논문이 14편으로 매우 많은 논문이 나왔고, 2020년도 6편, 2021년에도 10편이나 발표되었다. 특히 철학사상 분야의 박사논문이 5편인데 『주역』 관련 논

문이 4편이고, 1편은 왕충(王充)에 대한 논문이 나와서 향후 『주역』 관련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나머지 논문은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등과 선진·한당시기 유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선천강의 박사논문은 갑골 복사(卜辭) 등의 고대 출토문헌 자료를 통해 고문자적 관점에서 『역경』 괘명, 괘·효사의 본래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필자는 『주역』의 경(經)과 전(傳)의 관계, 경(經)에서 전(傳)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착안점으로 삼아서, 단순한 점서로서의 『역경』이 윤리·철학서인 『역전』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유가학파들이 그들의 정치관· 윤리관·사회관을 덧붙여 그 해석을 확장시켜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역경』과 『역전』의 군자 개념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군자 개념에 대한 유가 윤리적 재해석 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도경의 박사논문은 『주역』의 수양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주역』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자연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필자는 『주역』에서 인간의 등급을 소인, 군자, 대인, 성인의 네 종류로 구분한 존재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또한 『주역』에서 말하는 수양논의 실천방법에서는 배움과 깨우침, 취상비류, 진덕수업이라는 세 항목으로 나누어 탐구하였다. 이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에 이를 수 있는 『주역』 수양방법론의 실제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 논문 가운데 윤무학의 논문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대표적 문헌에 반영된 "오행"의 원시적 배속과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左傳』과

『國語』를 중심으로 춘추시대 상황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서주로부터 정립되기 시작된 오행 관념의 체계가 전국시대에 이르러 음양 관념과 결합될 때까지의 발전과정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한다.

### 3) 교육 분야 연구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김보경 | 『周易』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 간의 위계질서와 그 도덕화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 대구한의대학교 |
| 2 | 서정선 | 孟子의 王道政治論 硏究 : 恒心과 恒産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 원광대학교 |
| 3 | 정해왕 | 『예기(禮記)』「악기(樂記)」 연구 – 「악기(樂記)」의 정치성과 예(禮) 악(樂)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 대동철학 96 | 대동철학회 |
| 4 | 성시훈 | 유교적 성왕(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 한국유교학회 |
| 5 | 안외순 | 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의 재고찰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 동방학 44 | 동양고전연구소 |
| 6 | 안춘분 |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 유학연구 56 | 유학연구소 |
| 7 | 서재현<br>김도일 |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힘 –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한 『맹자』읽기 – | 유학연구 57 | 유학연구소 |
| 8 | 정영수 | 맹자의 일치일란 역사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 한국유교학회 |
| 9 | 한송희 | 『맹자』에 나타난 고자 사상의 정치적 함의 — 『맹자』 「고자 상」 1~4장과 「공손추 상」 2장을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 107 | 동양철학연구회 |
| 10 | 정재현 | 윤리–정치적 진리와 순자의 正名 –三惑을 중심으로 | 철학탐구 63 | 중앙철학연구소 |
| 11 | 박동인 | 鄭玄의 讖緯理解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 – 감생제설과 우주생성론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4 | 율곡학회 |
| 12 | 김종백 | 『춘추 좌씨전』을 통해 본 국가 간 신뢰에 관한 고찰 – 제 환공 시대의 맹약을 중심으로 – | 퇴계학논집 28 | 영남퇴계학연구원 |

2021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5편으로, 2019년 4편, 2020년도 7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맹자와 순자, 그리고 공자, 순자로 이어지는 「악기」와 관련된 논문들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공자의 인성교육과 『논어』의 '학(學)', 『맹자』의 사단과 사덕에 대한 교육과정을 다룬 논문들이었다. 금년에는 공자와 묵자 사상의 도덕교육, 『맹자』의 교육관, 동중서(董仲舒)의 교육사상을 다룬 논문들이 포함되어, 논의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김민재의 논문에서는 춘추 시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공자와 묵자의 사상에 나타나는 동이점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필자는 겸애와 상현, 귀의를 중심으로 공자와 묵자 사상의 동이점을 모색했다.

신창호의 논문에서는 한나라 초기 동중서의 교육적 사유와 정책을 교육의 기조에서 근거와 지향, 그리고 실천이라는 구조를 통해 검토하였다. 필자는 동중서가 '대일통(大一統)'과 '독존유술(獨尊儒術)'의 국가철학을 수립하고, '중민(中民)'의 본성을 소유한 인간을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삼강(三剛)'을 도덕의 '기본 준칙'으로 설정하고 '오상(五常)'을 도덕의 '핵심 관념'으로 이해한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동중서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인데, 중국교육사상사에서 동중서 국가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중국 교육 사조를 인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김보경 | 『周易』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 간의 위계질서와 그 도덕화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 대구한의대학교 |
| 2 | 서정선 | 孟子의 王道政治論 硏究 : 恒心과 恒産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 원광대학교 |
| 3 | 정해왕 | 『예기(禮記)』「악기(樂記)」 연구 – 「악기(樂記)」의 정치성과 예(禮) 악(樂)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 대동철학 96 | 대동철학회 |
| 4 | 성시훈 | 유교적 성왕(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 한국유교학회 |
| 5 | 안외순 | 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의 재고찰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 동방학 44 | 동양고전연구소 |
| 6 | 안춘분 |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 유학연구 56 | 유학연구소 |
| 7 | 서재현<br>김도일 |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힘 –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한 『맹자』읽기 – | 유학연구 57 | 유학연구소 |
| 8 | 정영수 | 맹자의 일치일란 역사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 한국유교학회 |
| 9 | 한송희 | 『맹자』에 나타난 고자 사상의 정치적 함의 — 『맹자』 「고자 상」 1~4장과 「공손추 상」 2장을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 107 | 동양철학연구회 |
| 10 | 정재현 | 윤리–정치적 진리와 순자의 正名 –三惑을 중심으로 | 철학탐구 63 | 중앙철학연구소 |
| 11 | 박동인 | 鄭玄의 讖緯理解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 – 감생제설과 우주생성론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4 | 율곡학회 |
| 12 | 김종백 | 『춘추 좌씨전』을 통해 본 국가 간 신뢰에 관한 고찰 – 제 환공 시대의 맹약을 중심으로 – | 퇴계학논집 28 | 영남퇴계학연구원 |

2021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12편으로, 2019년도 12편과 같고, 2020년도의 17편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작년에 경제 분야는 1편이 나왔고 정치 분야에 16편이 치중되었지만, 금년에는 경제 분야가 1편도 없어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보경의 박사논문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주역』을 분석하여 정치 사상적 근거를 살펴보고 『주역』의 정치사상이 가진 현대적 의의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필자는 『주역』이 지향하는 사회와 통치자에 대한 탐구를 위해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경』과 『역전』을 구분하여 『주역』의 정치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해왕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관점과 다소 다르게 「악기」에 대한 연구를 객관화시켜 비록 유학적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가치체계 밖에서 유학의 정치성과 관련한 정치체제로서의 '예'와 그것을 홍보·미화하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악'의 상관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종백의 논문은 『춘추 좌씨전』의 문헌 상 특징을 기반으로 제나라 환공의 시기에 체결된 맹약의 유형과 특징을 유가 정치사상에 비추어 검토하고, 현대 국제 정치로의 적용 가능성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춘추 좌씨전』에 나타난 국가 간 맹약을 분석하고 현대의 국제정치와도 연관 지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 할 수 있다.

5) 기타연구

| 번호 | 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 | 발행기관 |
|---|---|---|---|---|
| 1 | 조희영 | 팬데믹[코로나19]에 대처하는 『주역(周易)』의 방도—의리적 인문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90 | 민족문화연구원 |
| 2 | 조은영 | 유가(儒家) 전쟁관(戰爭觀)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 한국유교학회 |
| 3 | 권오륜<br>김정효 |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 유학연구57 | 유학연구소 |
| 4 | 손보미 | 『論語』 '學' 개념의 의학교육적 함의 | 동양고전연구 82 | 동양고전학회 |

| | | | | |
|---|---|---|---|---|
| 5 | 윤민향 | '관계적 공격성'에 대응하는 고전교육의 응용윤리적 접근 연구 – 『논어』 읽기를 통한 치유와 인격함양을 중심으로 –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 한국유교학회 |
| 6 | 엄진성<br>정병석 | 순자철학과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체육교육 | 철학논총 104 | 새한철학회 |

2020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9편으로 2018년도 3편, 2019년도 5편에 비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2020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주역과 관련된 박사 논문이 2편이나 있고, 일반 논문이 7편이다. 먼저 이호열의 박사논문에서는 태권도의 체계적인 이론을 역학(易學)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역학과 태권도의 상관성(相關性)을 규명했다. 필자는 체계적인 태권도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태권도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역학이론(易學理論)을 제시하고, 태권도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론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태극품새'의 '태극(太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규명하기 위하여 태권도 태극품새의 역학적(易學的)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기호의 박사논문은 『주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군자를 자기 성찰적 존재이며, 인간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며, 회복되어야 할 본래적 인간의 모습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인간완성으로서의 군자는 우환 즉 마음의 병이 없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수덕(修德)의 원리를 말한 『주역』「계사전」의 삼진구덕괘와 그 근거가 되는 『주역』 구덕괘(九德卦)의 괘·효사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덕목 속에 투영된 수덕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환의 극복을 위한 자기 치료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일반 논문 중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논문이 2편이 있다. 김연재의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점으로서 한 대(漢代)의 재이(災異)문화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공동체의 의식을 생태주의적 시선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명의 강령을 모색했다. 이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삶이 생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문명사적(文明史的)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형태는 최근의 시대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록된 72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일반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안춘분의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이다. 이 논문은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의 처세에 대하여 공자의 평가에 중심을 두었으며, 그 평가의 소이연(所以然)을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탐색한 논문이다. 공자는 관중에 대해 그릇이 작고 사치했으며 예를 알지 못하였다고 평가절하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환공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제후를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관중의 공(功)이니, 그가 없었다면 중국은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공자가 이처럼 관중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음으로써 훗날 치열한 치도논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관중의 평가는 유가와 도가 중심의 중국철학사에서 제3의 대안적 사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자는 먼저 공자의 평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춘추』대의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대의의 덕목을 정명의 구현과 중화의 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필자는 관중에 대한 공·맹의 평가를 고찰한 연후에 이러한 인물의 평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기대효

과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관중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두 가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논어』 「헌문」에서 공자는 관중이 백씨의 변읍 삼백호를 빼앗았는데, 백씨는 거친 밥을 먹으며 평생을 마치면서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능력이 민심을 얻었다는 증거이다. 「헌문」에서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는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관중의 힘이었다고 한 것도 관중의 정치적인 능력과 재능이 매우 특별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 공자는 『논어』 「팔일」에서 그를 혹평하였다. 관중은 적장을 모셨으며, 환공이 패자가 되게 하였다. 그 후 자신도 패자인 양 사치를 하였으며, 끝내 신하로서의 정명(正名)을 자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예를 모른다는 혹평을 받았다. 다시 공자는 관중의 그릇은 작다고도 하였다. 이것은 관중이 막강한 재능과 힘이 있었으면서도 중화(中華) 세계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그 품은 뜻이 현실적인 입장에 그쳐서 더 크게 보고 행동하기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편 맹자는 관중이 왕도를 따르지 않고, 오래 국정을 운영하면서 패업을 이룬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말처럼 관중의 행적을 보면, 『공양전』 장공(莊公) 13년 조와 『춘추좌전』 장공 32년 조와 『춘추좌전』 희공 12년 조에서는 정명을 다하였고, 위의 내용 이외에 『춘추좌전』에는 희공 24년, 희공 33년, 소공 11년에 기록이 보이는데, 『춘추좌전』 희공 24년에는 "제나라 환공은 자기 띠의 고리를 쏘아 맞춘 일을 불문(不問)에 붙이고 관중으로 하여금 재상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춘추좌전』 희공 33년에는 "관중은 제나라 환공의 원수였는데도, 실로 환공을 도와서 패자가 되게 하였

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관중이 제환공의 신하가 된 것이 정명에는 맞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에 정명에 의한 정치를 잘 하였다고 하여도 애초부터 어긋난 점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필자는 『춘추좌전』 희공 12년 조에서는 관중은 정명의 실현을 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춘추좌전』 희공 33년에는 관중이 제환공의 신하가 된 것이 정명에는 맞지 않다고 하여 글 전체의 방향성이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 모순점에 대하여 정약용의 『논어고금주』에서 이론적 근거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이(程頤)와 주희는 모두 환공이 형이고 자규(子糾)가 아우라고 한다. 정이가"환공은 형이고 자규는 아우인데, 양공(襄公)이 죽으니 환공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희 역시 "관중이 죽지 않을 수 있음은 바로 소백(小白)이 형이고 자규가 아우이기 때문이다"라 했다. 그렇지 않다면 환공과 관중이 함께 협력할 수 없으며 공자가 이를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분적 질서에 따른 의리를 중시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모기령(毛奇齡)은 "자규 소백은 모두 제 희공(僖公)의 아들이고 제 양공(襄公)의 아우이다. 그러나 자규가 형이고 소백은 아우이다. 정(程)· 주(朱) 두 사람만 홀로 환공이 형이고 자규가 아우라고 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홀(召忽)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한편 관중의 죄를 감하려고 했다"고 했다. 정(程)·주(朱)의 주장은 공자의 긍정적 평가를 전통적 명분론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신시기군(臣弑其君), 자시기부(子弑其父)와 함께 제시기형(弟弑其兄)도 춘추시대에 세상은 쇠하고 도가 희미해지는 것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느냐이다. 정약용은 『사기』 에는 양공(襄公)의

다음 동생이 규이고 다음 동생이 소백이라고 되어있음을 취하여 "환공이 아우이고 규가 형임은 분명하다."고 하여 모기령의 견해에 찬동한다. 환공이 아우일지라도 그래서 아우가 형을 죽인(弟弑其兄)결과가 된다 해도 관중의 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있다.

그런데 정약용은 환공이 규를 죽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동하지 않는다. 그는 규를 죽인 것은 『춘추』에 의하면 "제인(齊人)이 죽였다"고 했고, 『관자』에는 "노인(魯人)이 죽였다"고 했다는 근거를 든다. 환공이 규를 죽인 것이 아니라면 아우가 어찌 형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고 만다.

또한 『논어』 「헌문」에서 자공이 말하였다. "관중은 인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환공이 규를 죽였으니 환공은 이에 관중의 원수이다. 관중이 죽지 못하면 말 것이지, 환공을 섬겨서 재상이 되어 군주를 잊고 원수를 섬기니 마음이 잔인하고 이치에 해롭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도로 대답하였다. "환공을 도운 것이 큰 공이 되고 규에게 죽는 것이 작은 절개가 됨을 밝혀서 인에 해로울 것이 없다." 그렇다면 필자가 관중이 제환공의 신하가 된 것이 정명에는 맞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에 정명에 의한 정치를 잘 하였다고 하여도 애초부터 어긋난 점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시한 관점은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관중의 집권 평가는 왕패논쟁에 담긴 유교의 정치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필자의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확대된다면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장원태의 「딜레마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

본 곡속장(觳觫章) -인(仁)과 지(智)의 관계를 중심으로」이다. 필자는 『맹자』「양혜왕상」 7장에서 맹자가 딜레마처럼 보이는 세 상황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제선왕이 소를 살리려고 하는 일은 흔종과 양립하기 어렵고, 둘째, 군자가 희생물에 대해 갖는 동정심은 희생제의와 육식과 양립하기 어렵고, 셋째, 백성을 보호하는 일과 제선왕의 바람은 양립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 상황 모두에서 행위자가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이를 그대로 실천할 때 다른 한쪽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맹자가 딜레마를 해소하고 동정심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인정(仁政)을 제시한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세 상황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과 의의 실제를 알고 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는 지혜〔智〕(「이루상」 27)나, 통치자가 인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실패하지 않고, 실제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이루상」 1)에 상응한다고 진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맹자가 이 장에서 인한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때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즉 인의 실천을 위한 맹자식의 실천적 지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곡속장(觳觫章)에서 중요한 것은 왕의 행위가, 소보다 양의 값이 싸기 때문에 소를 양으로 바꾸겠다는 유용성을 초월해 있다는 점이다. 제선왕은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 소를 살려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소의 죽음을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불인인지심'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상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었으므로 왕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때문에 곡속장은 제선왕의 행위를 인술(仁術)이라고 말한 점에서, 유교의 최고 덕목인 인이 불인인지심이라는 미적 차원의 정감, 또는 측은지심

의 확장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는 곡속장의 전개 과정 전반을 딜레마의 해결로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독특한 소재로 다루고 있다. 제선왕은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소를 살리면 흔종을 폐지해야 하고, 흔종을 진행하면 소는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가 보기에 제선왕은 소에게 느낀 측은지심을 보존하면서도 흔종을 실행하는 데 성공했다. 딜레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선왕은 소를 자신이 보지 못한 양으로 바꾸어 문제를 해소해 버린 것이다.

맹자는 또 다른 상황, 군자가 짐승을 죽이는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제시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에게 느끼는 측은지심과 짐승을 죽이는 일은 쉽게 양립하기 어렵고, 군자는 딜레마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맹자는 군자가 푸줏간을 멀리하는 일이 양자를 양립하게 하는 방법인 인술(仁術)이라고 말하며 제선왕이 했던 일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후반부에서 맹자의 논변을 통해 제선왕은 앞에서와 유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제선왕은 천하의 정치 질서를 안정시키는 일과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맹자의 말대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면 자신의 바람을 이룰 수 없고, 자신의 바람을 이루려고 하면 제선왕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왜 유독 이 장에서 딜레마로 보이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논한 것일까? 필자는 맹자가 이 장에서 인한 마음의 발생과 인한 마음의 확장으로서의 인정(仁政)뿐 아니라, 인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智〕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물론, 맹자는 이 장에서 단 한 차례도 지혜〔智〕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

러나 필자는 본고에서 맹자가 지혜를 논한 다른 대목(「공손추상」 7·「이루상」 1·「이루상」 27·「만장하」 1)을 참고해, 이 장에서 제시한 방법인 인술과 인정은 인의 실천을 위한 지혜에 해당함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맹자가 곡속장에서 인한 마음의 발생과 인한 마음의 확장으로서의 인정(仁政)뿐 아니라, 인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智〕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제선왕이 지혜롭지 못하여 결국 인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한다면 주의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주희의 관점을 통하여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주희는 보통사람이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지만 '불인인지정(不忍人之政)'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물욕에 가려서 그렇다는 것이다. 오직 성인만이 물욕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불인인지심'을 미루어 '불인인지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주희는 군주가 '불인인지심'이 있지만 '불인인지정'을 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말하였다. 자산(子産)이 정(鄭)나라의 정치를 주관하고 있을 때 자신이 타던 수레를 이용하여 진수와 유수에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준 일에 대해 주희가 "자산은 불인인지심은 있으나 불인인지정은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산은 사사로운 은혜와 작은 이익에 치우쳐 정사를 공평하고 정대한 체통과 법도로써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맹자도 자산이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를 하는 법을 모른다고 경계했다.

그리고 제선왕이 흔종에 쓰려고 죄 없이 사지(死地)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불인인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본 맹자는 인정(仁政)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주희는 제선왕의 측은지심이 사지에 끌려가는 소에게 미쳤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불인인지정'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만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희는 "옛사람은 반드시 친친(親親)에서 인민(人民)으로 인민(人民)에서 애물(愛物)에 미치니, 모두 가까운 데서 먼 곳에 이른다. 그런데 제선왕은 이것을 반대로 하였으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까닭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볍고 짧아서 공효(功效)가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희는 제선왕이 불인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명(功名)과 사욕에 빼앗겨서 인정을 행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용환의 「맹자의 선천적이고 직관적인 선의 실행 가능성」논문에서는 선 실행의지와 관련하여 도덕의지 결핍을 유혹과 나태로 꼽고 있으며 선 실행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덕의지의 결핍은 이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식의 부족, 정치사회적 문제 등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 실행 의지를 강화하는데 '사려' 외에도 교육적 차원, 문화적 차원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주희의 관점과 정용환의 견해만 보더라도, 필자가 제선왕이 지혜롭지 못하여 인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밝힌 점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선왕이 불인인지심은 있지만 인정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공명(功名)과 사욕에 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일 수 도 있고, 교육적 차원, 문화적 차원 등 다양한 원인이 가능할 수 있다. 필자 말대로 곡속장에서 단 한 차례도 지혜〔智〕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다. 향후 필자가 『맹자』 곡속장에 대해 주희의 견

해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선행연구도 보충하여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된다면, 곡속장연구의 지평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5. 평가와 전망

2021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72편이다. 2019년도 86편, 2020년도 95편과 비교해 보면 대폭 줄었다. 시대별로는  전체 72편 중 선진시기가 총 65편으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 6편, 당나라 시기 1편으로 예년보다 줄었다. 2021년도 전체 72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10편으로 2019년도 86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6편보다는 소폭 늘었고, 2020년도 95편의 논문 중에 16편의 박사논문 보다는 소폭 줄었다. 2021년도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논문의 수가 72편으로 전년도보다는 적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공자와 맹자 관련 논문 그리고 철학 분야와 정치 분야가 소폭 늘어 중진 학자들은 물론 신진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21년에는 공자에 대한 연구가 19편으로 꾸준히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19편중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철학의 학술사적 가치를 다룬 논문을 비롯하여, 공자의 도덕철학,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맥락이해,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등 을 다루고 있어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21년도 17편으로 2020년도 17편과 동일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2편이 나왔고, 2021년에

도 3편이 발표되어 향후 맹자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순자에 대한 연구가 2021년에 7편으로 전년도 8편과 비슷하고, 2020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일반 논문의 내용은 순자 철학의 정명(正名), 정안례(靜安禮), 체육교육과 순자 철학 등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왕충에 관한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어, 앞으로 한대 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 왕충, 정현, 양웅, 왕필의 한대 유학사상가들과 당대 공영달의 연구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2021년도 철학사상, 교육,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 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특히 경학사상은 전년도 16편에서 8편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2021년도 철학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일반논문이 12편이고 박사 논문이 4편이나 나왔으며, 『주역』의 정치사상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나 수양론, 죽음관, 『주역』관련 생명정신을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예기(禮記)』와 『춘추』 분야는 연구자와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예기(禮記)』「악기(樂記)」, 『춘추』, 『춘추 좌씨전』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유학의 경전과 교육·정치 등의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을 통하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되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집중적

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유학이 현재성을 지닌 학문으로서 가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